



국회도서관, 리빙 라이브러리를 한국에서 실현시키다

2010년 새로운 기획으로 《도서관문화》에서는 매달 주목할 만한 도서관 관련 행사나 화제의 인물, 중요이슈와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첫번째로 3월호에서는 국회도서관에서 실시한 리빙 라이브러리 행사를 취재해 보았다. 유럽 등에서 먼저 실행되었던 리빙 라이브러리, 리빙 라이브러리는 사람이 책이 되고 책이 사람이 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마침 국회도서관에서 리빙 라이브러리 행사를 개최한다기에 《도서관문화》 편집팀이 찾아가 행사 관련 내용에 대해 유종필 국회도서관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진행: 심효정, 사진: 국회도서관

■ “살아있는 책과 만나는 리빙 라이브러리”. 처음 덴마크와 영국, 헝가리 등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기사를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국회도서관에서 행사를 하신다고 해서 많이 기대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신지요...

⇒ 유럽의 도서관 이야기를 들으며 리빙 라이브러리(Living Library)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리빙 라이브러리는 도서관에 와서 ‘책’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빌리는 것으로 독자가 신청한 ‘책’은 20

분~30분 동안 대출되며, ‘자료의 특성’상 관외 대출은 허용되지 않고 도서관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덴마크 출신의 사회운동가 로니 에버젤이 2000년 덴마크에서 열린 한 뮤직 페스티벌에서 창안한 것으로 시작된 행사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국회도서관에서도 실행해본다면 기존 프로그램과는 색다른, 조금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 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리빙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준비할 내용도 준비 기간도 많이 소요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리빙 북(Living Book) 선정이 가장 까다

롭고 어려웠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빙 북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 네, 말씀하신대로 준비 기간도 한 4개월 정도 소요됐고 리빙 북 선정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너무 유명한 분들은 시간이 없으니 대상에서 제외했고, 또 분야별로 다양하게 선정하려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이 프로그램을 실현시킨 유럽에서는 소수, 약자들을 대상으로 리빙 라이브러리를 진행하면서 남자간호사, 여자소방관, 동성애자 등 평소에는 다소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문화적 환경이 다르니까 그런 점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주로는 시인, 여행작가, 방송작가, 언론인, 방송인, 연극인 등 사람들에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요즘의 관심사인 문화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선정을 했고, 그 외에도 바텐더, 새터민, 여자소방관, 남자간호사 등 색다른 직업을 가진 분 총 43명을 리빙 북으로 선정했습니다. 너무나 고마운 것은 저희가 선정한 많은 분들이 리빙 북 선정을 즐거워하시며 선편 허락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 예전에 헝가리도서관에서 리빙 라이브러리 행사를 한 신문기사를 보았을 때 기억에 남는 것은 가장 인기있는 대출도서가 “교도소를 다녀온 경험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정이 좀 다르겠지만 리빙 라이브러리 행사 중 기억에 남는 이용자가 있으시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또한 이용자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대출도서는 어떤 분야의 대출도서인가요?

⇒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최근 대중들이 관심있어 하는 분야인 방송기자 등 언론인, 여행작가, NGO 활동가 등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리빙 북을 이용한 분들 중 인상적인 이용자가 있었습니다. 드림페인터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으로 사람들에게 꿈을 묻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분이더라구요. 또 다른 한 분은 트랙터 트래블러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셨는데 트랙터를 타고 전국을, 전 세계 여행을 꿈꾸는 분이셨습니다. 리빙 라이브러리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용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었습니다. 리빙 북이 되는 사람과 리빙 북을 대출하는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이번에 리빙 북을 대출하기 위해 행사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 추후에 이런 행사가 또 기획된다면 다음에는 직접 리빙 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분도 여러분 계십니까.

■ 이번 행사가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단 하루였지만 30분씩 총 155회에 걸쳐 123명이 참여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습니다. 사실 처음에 반응이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습니다. 국회도서관에서 실험적으로 해 보게 되었는데, 리빙 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나 리빙 북을 대출하신 분들 모두 만족해 하셨습니다. 여러 리빙 북을 대출하고 싶어하는 이용자도 있었지만,



▶ 리빙 라이브러리 행사에서 리빙 북으로 참여중인 유종필 관장



▶리빙 라이브러리 행사 단체 사진

시간상 또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했는데 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열정도 다시 느낄 수 있는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호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지속사업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주제를 정해서 주제와 관련된 리빙 북만으로 한정자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에 좀 더 신경 쓰려고 합니다. 리빙 북이 현재 관심을 받고 있는 소셜네트워킹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래 전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람이 책이었던 시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귀한 가르침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연장자인 어른들이 후손들에게 전해졌으며, 종이와 생기면서 책이란 개념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지요. 도서관의 3대 요소에도 사람(이용자, 사서), 건물, 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도서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그 점을 활용해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셨다는 점이 매우 마음에 듭니다. 국회도서관이 그 시발점이 되어서 새로운 이용자 서비스로 다른 도서관에도 확산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도서관에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조언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 살아숨쉬는 도서관이 우리나라에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도시보다는 지방의 경우 이 행사를 진행하려면 아마도 리빙 북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대안이 국회도서관과 협력해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장소는 해당 도서관에서 마련하고, 리빙 북은 국회도서관에서 확보를 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동도서관 형태라고 해도 되겠지요.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대화시간 30분이 조금은 짧은 것, 대출종료 후에 10분~20분 정도의 대기시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도서관에 확산된다면 도서관에 대한 사회 인식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서관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방향 등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우리나라 도서관이 시민과 호흡하고, 정보의 허브가 되어야 하며, 놀이마당이 되어야 하고, 문화센터가 되어야 하며,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자들, 각 지역의 단체장들의 인식변화가 우선이겠지만 도서관인들도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부러워하는 해외도서관은 정숙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것, 자료의 상호대차와 공동이용이 잘 되고 있다는 점 등이 바로 도서관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사서들은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말고 창의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전략적 사고를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